



3면

여야, 내년 예산안 558조 합의  
6년 만에 법정 시한 지킨다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 잼버리 예산 2배 늘었다

### 1.7배 증가한 총 846억 확정, 기반시설 구축 탄력 성공개최 초석... 송 지사, 끈질긴 설득 성과 일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예산이 적극 반영돼 대회 성공 개최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총사업비가 지난달 30일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실상 2배 증액된 84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총사업비는 대회 유치 시 승인받은 491억원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규모이며, 국비 지원 규모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은 행사개최를 위한 필수시설(상·하수도, 전기, 통신 시설, 대집회장 등) 사업비와 지난 2016년 행사 유치 이후 변동된 여건 반영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6년 유치 시 승인받은 사업비는 행사기간(12일간)의 직접소요 경비 위주로 편성돼 기반시설 설치, 프레임잼버리 등 필수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미 반영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2017년 8월 대회 유치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잼버리 준비종합계획”과 “잼버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통해 대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 사업비를 산출, 이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여가부와 협의의 협의를 시작으로, 수습체제의 실무협의와 기재부에서 지정한 외부전문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사업비 적정성 분석,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특히, 송지사는 협의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로 세계잼버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번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향후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대집회장 조성 등 행사 관련 기반시설 마련과 운영 준비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우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영장 상부시설 및 전력시설 설계를 시작한다.

또 상·하수도, 주차장, 그늘 조성 등

기반시설공사와 참가자 등록·교육·행사운영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시작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운영, 수송, 환경, 물자보급, 안전 등 각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도 구체화 된다.

송지사는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 등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소

통과 진정성 있는 설득으로 정부자원을 이끌어 냈다며 “남은 2년 동안 그동안의 다수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역대 최고·최대의 잼버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힘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수능 문제지 운송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를 시험 지구별로 운송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정읍·부안 동진강 야생조류 AI 확진

전북도는 지난달 25일과 28일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신대인을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D)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시료채취일(11월 27일) 기준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조소를 설치해 사

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도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금강 만경강 동진강 고창 동립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주변 3km 주변 지역을 ‘AI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한다.

사람이 출입 가능한 곳과 주차장 등에 피·안개관·현수막 등으로 통제 표시와 함께 시군 담당관을 지정해 출입 통제하고, 해당 지역에 사용하고 있

는 가금농가(6호): 닭 49, 오리 16)에 매일 전화 예찰과 함께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 닭·오리 사육농가는 입식전에 시군에 사전 신고를 하고, 울타리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현장 점검에 통과를 해야만 입식이 가능하다.

한편, 도 방역당국은 “닭·오리 농가에서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새만금사업법’ 국회 통과

### 민주 김윤덕 의원 발의...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탄력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돼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해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험 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특례 도입=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도지사 및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스마트 도시 추진=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새만금 지역 내 각종 개발 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통해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돼 기후 환경 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km)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해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스마트 도시 추진=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새만금 지역 내 각종 개발 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통해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돼 기후 환경 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km)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해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